

The Gospel of Mark

Sermon 35 – Sermon Notes

Title: “Peter's confession”

Scripture: Mark 8:27-30

Date preached: May 7th 2023**Scripture: Mark 8:27-30**

27 Now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to the towns of Caesarea Philippi; and on the road He asked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Who do men say that I am?” 28 So they answered, “John the Baptist; but some say, Elijah; and others, one of the prophets.” 29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answered and said to Him, “You are the Christ.” 30 Then He strictly warn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one about Him.

27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28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9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0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시켰다.

Review

Before we look in some depth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We found ourselves in the fishing village of Bethsaida. As I said last time there were at least two towns sharing the same name. The Bethsaida we are interested in was renamed Bethsaida Julias by Philip the tetrarch some time during Jesus earthly ministry. It was located on the north eastern shore of the sea of Galilee close to where the Jordan river enters the sea. Interestingly, it was the home town of three of the disciples, Peter, Philip and Andrew.

Jesus and the disciples arrive by boat. As was often the case it was not long before Jesus was approached by someone seeking His healing touch. On this occasion it was a blind man who was led to the Lord. His friends hoped for Jesus to show mercy and heal their friend. The miracle itself as I said last time interesting, in fact its unique. All the other miracle accounts recorded throughout the gospels are instantaneous. Jesus touches or speaks a word and the person is cured immediately. On this occasion we see Jesus heal in stages. We accept that Jesus had absolute control over the healing methods He employed.

He could have chosen, as He typically did to heal completely and fully at the first touch. Here He chose not to for reasons that are not explained. Let us remind ourselves of how Jesus went about healing this man.

Firstly He leads the man away from the town and other people. No doubt it was easier to make a connection and interact with the blind man away from other people. He then spits on the man's eyes. As I said last week this might strike us today as being strange, and if we are honest rather gross. I doubt we'd continue visiting a doctor whose attempts to cure us involved spitting on us. But Jesus' reason for spitting surely served some purpose or significance that lies beyond our understanding today. Jesus then places His hands upon the man and asks him if he sees anything. It's an interesting thing to ask because Jesus had no doubt about His ability to cure this man. I wondered last time whether it was designed as a lesson or teaching point for His disciples. The lesson being that sight, especially spiritual sight or understanding doesn't always come instantly. The man responds to Jesus' question by saying he can see a little, but that his sight is still blurry and unclear. He can make out people but they look like trees. The fact that he knew what

trees looked like strongly suggests that this man was not born blind. As I said last week there were many reasons people lost their sight in the ancient world. Jesus then touches the man for a second time and makes him look up. It is this second touch that completes the healing process. The man is now able to see clearly. The story concludes with Jesus instructing the man to keep this miracle a secret and to return quietly to his home.

Mark is the only gospel writer to include this particular healing miracle. And as we will see shortly the miracle forms a very important moment of transition within his gospel. Throughout the first eight chapters we have seen Jesus engage in a wide range of public ministry. He has gone out into the world to share the gospel and back up His claims through signs and wonders. From this point on He will focus more on teaching and equipping His disciples. The time now is short and the shadow of the cross grows closer. Sinclair Ferguson in his study guide on Mark calls this point in Mark's gospel a "turning point." Another way to think about it is that it is like an intersection on a road. Mark has been taking us along this road and now we arrive at the intersection. We are about to change direction.

We would do well to remember Mark's intent in writing. His purpose has been to help his readers identify or "see" exactly who Jesus is. He begins his gospel by announcing that this is an account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oday we know exactly what that means. We know that we are reading the good news about the God man, the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the one sent to be our saviour. But think about Mark's original readers. They were, in the main Gentiles, and in particular Romans. When they heard the term "Son of God" what came to their minds? Most likely they thought of the Caesar, or the Roman Emperor. The emperor was a mortal man who had divine status placed upon him when he attained the rank of emperor. He was considered to have become, but not been born a god. Such a description obviously does not apply to the Lord Jesus. So for eight chapters, half of the gospel Mark has been revealing clues, or providing evidence or support that would help his readers properly identify the Lord Jesus. He has cleverly done this by having the characters throughout his narrative ask questions about Jesus identity. Using questions is an excellent way of stimulating interest or engagement and encouraging thought. If I asked you for example what was the best way to travel from Anyang to Seoul. It would start you thinking. The subways good, but is there an express bus, is taking a taxi quicker? When we read the questions people ask about Jesus we subconsciously consider how we might answer. So its an effective tool that hopefully brings us to the truth about Jesus' identity.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from Mark's gospel.

Think about the occasion in which a paralytic man was lowered through the ceiling. The Lord Jesus told the paralytic man that He forgave his sins (Mark 2). The Pharisees present at that time were greatly offended, they asked who had the authority to do this. To forgive sins was the prerogative of God, and only God. What answer do we come to? Jesus is God, therefore He had the authority to forgive sins.

When Jesus calmed the storm the terrified disciples asked, who can this be, that even the wind and waves obey Him? (Mark 4). Human beings may wish they had control over the natural world. Just think how good it would be if we had the power to silence tropical storms, hurricanes or tornadoes. We don't have this power. Only the one who created and sustained it has such authority. Jesus as God has this power.

But now, as we shall shortly see Jesus turns things around. Now He is about to ask the disciples a question. It is a question on which the entire gospel rests. It is the question of Jesus Christ's true identity. We might describe it as the question of all questions. This is because your eternity hangs on how you answer this question. The question is this, Who is Jesus?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벧새다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했듯이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마을이 두 개 이상 있었

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벧세다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분봉왕 빌립에 의해 벧세다 줄리아스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단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과 가까운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 기슭에 위치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곳은 세 제자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도착합니다. 종종 그렇듯이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누군가가 예수님께 다가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께로 인도된 사람은 눈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이 기적 자체가 흥미롭고 독특합니다. 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다른 모든 기적 이야기는 즉각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지거나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즉시 치유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이 사용하신 치유 방법을 절대적으로 통제하셨음을 압니다.

그분은 일반적으로 첫 손길에서 완전하게 치유하는걸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무슨 이유론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그분은 그 사람을 마을과 다른 사람들과부터 떨어뜨리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사람들과부터 멀리 떨어진 시각 장애인과 소통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남자의 눈에 침을 뱉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상하고 솔직하게 불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치료하려고 저에게 침을 뱉는 의사를 계속 방문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침을 뱉으신 이유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목적이거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그것이 그분의 제자들을 위한 교훈이나 가르침의 요점으로 고안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시력이나 깨달음을 주는 교훈은 항상 즉각적으로 오지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조금 볼 수 있지만 그의 시력은 여전히 흐릿하고 불분명하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지만 나무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만지시고 그를 올려다 보게 하십니다. 치유 과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손길입니다. 그 남자는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 남자에게 이 기적을 비밀로 하고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라고 지시하심으로 끝납니다.

마가는 이 특별한 치유의 기적을 포함시킨 유일한 복음서 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 기적은 그의 복음서 안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의 순간을 차지합니다. 처음 여덟 장에서는 예수님이 광범위하게 대중을 상대로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나누고 기적을 통해 그분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상에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데 더 집중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십자가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싱글레어 퍼거슨은 마가복음에서 이 시점을 "전환점"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또 다른 방법은 도로의 교차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길을 따라 우리를 데려왔고 이제 우리는 교차로에 도착합니다. 방향을 바꾸려는 순간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의도를 생각해봅시다. 그의 목적은 독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식별하거나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선언하면서 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심을 받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하나님이지면서 인간(God man)이신 분에 관한 복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가의 원래 독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로 이방인, 특히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카이사르 또는 로마 황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황제는 황제의 지위에 올랐을 때 신성한 지위를 부여받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신이 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신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묘사는 분명히 주 예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덟장에 걸쳐 마가복음의 절반은 독자들이 주 예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드러내거나 증거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 전반에 걸쳐 인물들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현명하게 해냈습니다. 질문을 사용하는 것은 관심이나 참여를 자극하고 생각을 격려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안양에서 서울까지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하철도 좋은데 급행버스가 있나요, 아니면 택시가 더 빠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묻는 질문을 읽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희망적으로 우리를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진실로 인도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천장을 통해 내려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 2 장). 그 때에 참석한 바리새인들은 크게 노하여 누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얻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시므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마가 4 장). 인간은 자연 세계를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대성 폭풍, 허리케인 또는 토네이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분만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처럼 예수님께서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제 그분은 제자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복음 전체가 달려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질문 중의 질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당신의 영생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요?

Peter's confession

The account that we will look at today, Peter's confession appears in all three synoptic gospels. Given its great importance this should not surprise us. (Matthew 16:13–20, Mark 8:27–30 and Luke 9:18–21). When we compare the three accounts we can see that they are very similar with just a few minor differences. Matthew gives us the fullest account so although Mark is our focus as we progress I will draw on what the other gospel writers say. Let us begin with verse 27.

베드로의 고백

오늘 살펴볼 이야기인 베드로의 고백은 세 공관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놀랄 일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6:13–20, 마가복음 8:27–30 및 누가복음 9:18–21). 세 계정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설명을 제공하므로 마가가 우리의 초점이지만 다른 복음서 저자들

이 말하는 것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27 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atthew 16:13–20	Mark 8:27-30	Luke 9:18-21
<p>13 When Jesus came in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saying, “Who do men say that I, the Son of Man, am?” 14 So they said, “Some <i>say</i> John the Baptist, some Elijah, and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15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16 Simon Peter answered and sai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p> <p>17 Jesus answered and said to him, “Blessed are you, Simon Bar-Jonah, for flesh and blood has not revealed <i>this</i> to you, but My Father who is in heaven. 18 And I also say to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19 And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20 Then He commanded His disciples that they should tell no one that He was Jesus the Christ.</p>	<p>27 Now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to the towns of Caesarea Philippi; and on the road He asked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Who do men say that I am?” 28 So they answered, “John the Baptist; but some <i>say</i>, Elijah; and others, one of the prophets.” 29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answered and said to Him, “You are the Christ.” 30 Then He strictly warn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one about Him.</p>	<p>18 And it happened, as He was alone praying, <i>that</i> His disciples joined Him, and He asked them, saying, “Who do the crowds say that I am?”</p> <p>19 So they answered and said, “John the Baptist, but some <i>say</i> Elijah; and others <i>say</i> that one of the old prophets has risen again.”</p> <p>20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p> <p>Peter answered and said, “The Christ of God.”</p>

27 Now Jesus and His disciples went out to the towns of Caesarea Philippi; and on the road He asked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Who do men say that I am?”

Jesus and the disciples have departed from the region around Bethsaida. They are now travelling north a distance of around 25 miles (40 km) to the area of Caesarea Philippi. Although the towns start the same don't get confused with Caesarea Maritima. Caesarea Maritima was on the Mediterranean coast, it was where the main Roman garrison was based. It's also where the Apostle Paul was imprisoned and where he was tried before the Roman governors Felix and Festus and King Herod Agrippa II (Acts 10).

27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로 가시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새다 근방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현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

지 약 40 킬로미터 떨어진 북쪽으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시작은 같지만 가이사라 마리티마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가이사라 마리티마는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 로마의 주요 수비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곳이자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와 헤롯 아그립바 2 세 앞에서 재판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사도행전 10).

Caesarea Philippi was inland, located on a terrace at the base of Mount Hermon. It's a fascinating place with a very interesting and significant history. It is in this area that one of the four sources of the Jordan river, the river that gives life to Israel can be found. Therefore throughout antiquity it was always regarded as a mystical and special place.

In Old Testament times Caesarea Philippi was known by the name Banias or Panias. It was an important place of ritual and worship for the Canaanite people. It was here that they worshipped Baal. At least 14 temples sites have been discovered by archaeologists in this area. It was also here that the Canaanites carried out a particularly cruel form of capital punishment. Those accused of crimes were thrown into the “Gates of Hell,” in order to determine their guilt. The “Gates of Hell” was a cave entrance that opened into an underground river. In those days the underground waters flowed very quickly which meant the poor victims were swiftly battered to death on the rocks. So innocent or guilty your fate was the same. Death!

가이사라 빌립보는 헤르몬 산 기슭의 테라스에 위치한 내륙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역사를 가진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요단강의 네 발원지 중 하나인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는 강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내내 이곳은 항상 신비롭고 특별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니아스 또는 파니아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곳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식과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최소 14 개의 사원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특히 잔인한 형태의 사형을 집행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확인하기 위해 "지옥의 문"에 던져졌습니다. "지옥의 문"은 지하 강으로 통하는 동굴 입구였습니다. 그 당시 지하수는 매우 빠르게 흘렀기 때문에 불쌍한 희생자들은 바위에 부딪혀 순식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무죄든 유죄든 운명은 같았습니다. 죽음!

Later in history Baal worship was replaced by worship of another pagan god. People determined that a cave in the area had been the birthplace of the Greek god of nature, fields, forests, mountains, flocks and shepherds. He is known as Pan, or in the Roman pantheon he goes by the name Faunus. I'm sure you are very familiar with the god Pan. He is typically depicted in art work or statuary as being half man and half goat and is usually seen holding or playing a flute or pipe.

세월이 흐르면서 바알 숭배는 또다른 이방신 숭배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역의 한 동굴이 그리스의 자연, 들판, 숲, 산, 양떼, 양치기의 신이 태어난 곳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판(Pan)으로 알려져 있거나 로마 판테온에서는 파우누스(Faunus)라는 이름으로 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Pan 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예술 작품이나 조각상에서 반인반염소로 묘사되며 일반적으로 피리나 파이프를 들고 있거나 연주합니다.

The area became famous for a large cave known as the “grotto or cave of Pan.” Inside this cave human sacrifices to the god were performed. Also inside the cave etched upon the wall was a Greek sign that read, “gates of Hades.” During the time of Christ, Caesarea Philippi was commonly recognised throughout Israel as being the location of the literal “gates of hell.”

In 20 BC the town was gifted by the Roman Emperor Augustus to Herod the Great.

Herod had a temple built in the town in honour of Emperor Augustus. It was a place in which the emperor was worshipped as a god. Upon Herod's death his son Philip took over and in 2 BC had the city rebuilt and enlarged. He renamed it after himself and Tiberias Caesar. The town became known from this point on as Caesarea Philippi

So, as I have highlighted this was an area steeped in false pagan worship. Baal, Pan and the Roman Emperor. So do you think it was just a coincidence that Jesus had led the disciples here and asked them this particular question in this location. I think not. After that brief history lesson let us get back to the account.

이 지역은 "동굴 또는 판의 동굴"로 알려진 큰 동굴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동굴 안에서 신에게 인간 제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동굴 내부에는 "하데스의 문"이라고 적힌 그리스 사인이 동굴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문자 그대로 “지옥의 문”이 있는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기원전 20 년에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헤롯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 그 마을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곳이었죠.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빌립이 물려받았고 기원전 2 년에 도시를 재건설하고 확장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Tiberias Caesar 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 도시는 이때부터 가이사라 빌립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곳은 거짓 숭배에 흠뻑 젖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알, 판, 로마 황제. 그래서 예수가 제자들을 여기로 인도하고 이 장소에서 그들에게 이 특정한 질문을 한 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역사 공부를 마치고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So, somewhere in this region whilst walking along the road Jesus directs a question at the disciples. In Mark's gospel Jesus often uses a question as an opportunity to give a new teaching. The question though simple enough has very deep and serious implications, “Who do people say that I am?”

Jesus was of course aware of what many thought about Him. His many confrontations with the Pharisees had left Him in no doubt about what they thought about Him. He also knew from His visit to His home town of Nazareth that the people there still thought of Him as their carpenter. The Lord Jesus knew that an inadequate, or incomplete understanding of His true identity was catastrophic.

Many people today have a high degree of respect, and even admiration for Jesus. They regard Him as good teacher, someone who had compassion for the poor and down-trodden and as a wise man. These things are all true. But believing these things will not be enough to save you.

So, it's vitally important that as He now prepares Himself, and the disciples for the conclusion of His earthly mission in Jerusalem that His disciples fully understand who He is. Let us read on.

이 지역 어딘가에서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종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한 기회로 질문을 사용하십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이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매우 깊고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과의 많은 대결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또한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을 목수로 생각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한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이해가 재앙임을 아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높은 존경심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그분을 선한 선생으로,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지상 사명을 마치기 위해 자신과 제자들을 준비할 때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극도로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8 So they answered, “John the Baptist; but some say, Elijah; and others, one of the

prophets.”

We should note that Jesus had not openly stated to His disciples who He was. Rather, He had performed a range of amazing signs and wonders, spoken and taught with great wisdom and insight and lived an impeccable life. He had left the disciples and other onlookers to consider these things carefully, and come to their own conclusions. Let's look at some of the conclusions they had reached.

Some thought He was John the Baptist who had been reincarnated. This you will remember was what Herod Antipas believed (Mark 6). It's odd that people should think this. After all they were publicly seen together. They were also very different in personality and ministry. John came in the “spirit of Elijah.” He came with a message of impending judgement. John told people that the time was short, therefore they needed to repent and turn back to God. John was a prophet and teacher. He was fiery, controversial and confrontational. Jesus came with an attitude of meekness and servitude. He could be fiery when the situation called for it, but typically He was meek and mild. John was not a miracle worker. The Lord Jesus's ministry was peppered with a wide range of amazing signs and wonders.

Others thought Jesus was Elijah. This is a less surprising idea. It was generally expected that Elijah was to return to the earth in connection with the Messiah's coming. In the book of Malachi we read;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Malachi 4:5)**

So people were quite rightly looking for a return of the great prophet Elijah. His arrival would signal the imminent return of the Messiah. Elijah bears a great deal of similarity with John the Baptist. Both men were comfortable living in wild and dangerous places. They were wilderness prophets. They even dressed in a similar way. Elijah also called for national repentance and a turning back to God. Unlike John however, Elijah was known as someone empowered by God to perform miracles.

You may be interested to learn what Orthodox Jews still do today at the Passover feast. At the family table they set aside a chair for Elijah. They are still hoping he will arrive as the precursor to the coming Messiah.

Other people thought that Jesus was one of the prophets. This of course is a bit vague. Perhaps what some of them meant was that He was following in the line or tradition of one of the great prophets of old. That people thought this shows us that Jesus and His ministry were held in high regard by the common people.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the Jews believed that at the coming of the Messiah the prophets were to rise again.

It's also highly significant that they said Jesus was a prophet. Remember that there had been 400 years of silence in terms of revelation from God. No prophets had appeared on the scene for all this time. So most Jews, understandably thought that the spirit of prophecy had been quenched and would not be reignited until the coming of the Messiah. This helps to explain the excitement Jesus stirred up. If after all this time a prophet has appeared the Messiah must be soon to follow.

Matthew says in his gospel that some thought Jesus was Jeremiah. He was the last prophet that God sent to preach to the southern kingdom, comprising the tribes of Judah and Benjamin. There are some obvious similarities. Jeremiah was known as “the weeping prophet,” and Jesus was a Man of Sorrows. Jeremiah called the people to true repentance from the heart as did Jesus. Both men were misunderstood and rejected by their own people. Also both men condemned the false religious leaders and the hypocritical worship that took place in the temple. Finally, Jeremiah and Jesus were persecuted by those in authority.

What no one is saying is that here is the Messiah. Jesus had provided ample evidence for the people

to come to right conclusion, but it seems many just went on the opinions or ideas of others. How sad this is. Instead of thinking and investigating these things for themselves the people just accepted what everyone else was saying. I wish I could say things were different today, but we see the same thing. If you ask people what they think about Jesus or the bible they will often just repeat what they have heard someone else say. If you ask them whether they have looked at, or studied these things for themselves the truth is often that they have not. How terrible to think that you would risk an eternity of torment and misery by blindly accepting the thoughts or ideas of others.

So basically people assigned to Jesus a preparatory role. He was seen by many as being an important figure who would come before the long awaited Messiah. Few it seems had concluded that He was in fact the Messiah. This of course was because they had the wrong kind of expectations for the Messiah. Let us see what Peter has to say.

28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으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큰 지혜와 통찰력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흠 잡을 데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다른 구경꾼들이 이 일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그들 자신의 결론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몇 가지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환생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믿었던 것인데 기억하시죠 (막 6 장). 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함께 보여졌습니다. 그들은 성격과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달랐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왔습니다. 그는 임박한 심판의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언자이자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격렬하고 논쟁적이며 대립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섬기는 태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상황에 따라 불같이 화를 내실 수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온유하고 온화하셨습니다. 요한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역은 다양한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은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야는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하여 지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말라기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 4:5)**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도착은 메시아의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칠고 위험한 곳에서 기꺼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비슷한 방식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 또한 국가적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는 달리 엘리야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통과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유월절 축제에서 하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그들은 엘리야를 위해 의자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의 전조로서 엘리야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약간 모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고대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의 계보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일부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이 일반 사람들에게 의해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예언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예언자라고 말한 것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400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동안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언의 영이 소멸되었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다시 불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일으키신 흥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긴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언자가 나타났다면 메시아가 곧 오실거라는 거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예레미야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남쪽 왕국에 전파하도록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몇 가지 명백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었고, 예수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처럼 백성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를 외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족에게 오해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위선적인 예배를 정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와 예수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이미 여기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에 따라 갑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조사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나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거나 연구했는지 묻는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고통과 불행의 위험을 무릅쓴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준비하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라 먼저 올 중요한 인물로만 여겼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메시아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29 He said to them, “But who do you say that I am?” Peter answered and said to Him, “You are the Christ.”

Jesus had pointedly asked the disciples who other people thought He was. Now He directs the question directly to them.

Who do YOU say that I am? It is Peter who answers, but he acts here as a spokesperson representing the view or opinion of the other disciples.

We can be sure of this because none of them spoke up or objected. If this was not what they believed then we would have expected one or more of them to interject and say they did not agree with Peter. This is the first time in Mark's gospel that Peter acts as a spokesperson for the whole group. From this point on he will regularly act as a representative of all the disciples.

Peter's confession was clear and direct. In Mark Peter says, “You are the Christ.” Luke has “You are the Christ of God” and Matthew,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What exactly does Peter mean by this? Let us unpack what he says. I am sure you all appreciate that Christ is not a surname or family name. Our Lord's name was not Jesus Christ in the same way we get Tom Cruise or Joe Biden. Rather, the word “Christ” is a title or a description of a role, office or function. It derives from the Greek word *Christos* which is a rendering of the Hebrew word *Mashiach*, or “Messiah.” So we can say Jesus is the Christ, or, Jesus is the Messiah and it means the same thing.

Now the word Messiah means “the anointed one.” To understand what is meant by this we have to go back to the Old Testament. We see there that when certain people were appointed to particular authority roles they had oil poured over their heads. They were anointed with oil. This served to

signify that they were special, and that they had been set aside for God's service. What kinds of people went through this process? Only three, pay close attention now, Kings, prophets and priests (Ex. 40:12-15; 1 Sam. 16; 1 Kings 19:16). The Lord Jesus Christ serves or functions in each of these offices.

However towards the latter part of the Old Testament era the term “Messiah” came to have a more defined or technical meaning. It was used to describe the divine Davidic king who would appear to deliver Israel and establish a worldwide kingdom (Da 9:25-26). It was this notion of a warrior king Messiah, a national political figure that was dominant at this time. This is what the Jews were anticipating. It is likely that this is what Peter meant here. He was convinced that Jesus was the promised Messiah, the coming king who would miraculously heal the people and drive out the oppressors in the land. We know this because Peter is about to be rebuked for insisting that Jesus will not be arrested and killed by the authorities. Such a thing could not be the fate of the political saviour of the nation. Also we know that James and John eyed a position of power and authority in the political kingdom they expected (Mark 10:35-45). The disciples were still some way away from really understanding how Jesus would save the entire world.

It's worth considering why Mark records Peter as only saying, "You are the Messiah." Rather than the fuller statements given in both Matthew and Luke's account. To answer this we need to think about what Mark is emphasising throughout his gospel. His particular emphasis is upon the humanity of Jesus. So we might wrongly read what Peter says about Jesus in Mark and think he is not acknowledging Jesus' deity. That he is just saying that Jesus is the political hero everyone was waiting for. No, Peter is absolutely confessing Jesus deity. This is because when Mark is using the term “Messiah” he is thinking of the way the word is used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the term Messiah includes the concept of deity.

Let us see how the account concludes.

29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꼭 집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는 사람은 베드로이지만 여기서 그는 다른 제자들의 견해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 중 아무도 말하거나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 중 한 명 이상이 끼어들어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전체 그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시점부터 그는 정기적으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것을 풀어 봅시다.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Tom Cruise 나 Joe Biden 과 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역할, 직무 또는 기능에 대한 타이틀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Mashiach 또는 "Messiah"를 번역한 그리스어 Christos 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권위 있는 역할에 임명되었을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음을 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특별하고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 구별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쳤을까요? 오직 세 부류의 사람들 즉,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출 40:12~15; 삼상 16; 열왕기상 19:1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가지 직분을 모두 수행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후반부에 "메시아"라는 용어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계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실 신성한 다윗같은 왕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단 9:25-26). 국가적인 정치적 인물, 전투적인 왕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그 시대에 지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이고 베드로가 여기에서 의미했던 것일 가능성이 큼니다. 그는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이자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땅의 압제자들을 몰아낼 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곧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민족의 정치적 구세주의 운명일 수 없다고 생각한거죠. 또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왕국에서 권력과 권위의 위치를 노렸다는 것을 압니다(마가복음 10:35-45).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기록에 나오는 더 완전한 진술이 아니라 마가가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라고만 말한 것으로 기록한 이유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마가가 복음서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강조점은 예수님의 인성(humanity)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 말한 것을 두고 그가 예수의 신성(deity)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기다리던 정치적 영웅이라고만 말하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그는 구약 전체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라는 용어는 신성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0 Then He strictly warn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one about Him.

It's worth pointing out something significant that is not included here. Peter has made a very bold claim about Jesus' identity. He has claimed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Lord Jesus was a man of honour and integrity. Therefore if this title was inappropriate or just wrong, He would have spoken up and corrected Peter. Therefore in accepting what Peter says without challenge Jesus is affirming that Peter is correct and that He is the true Messiah. Throughout Mark's gospel Jesus rarely used this term Himself. In fact He never used it to refer to Himself. There was probably a very good reason for this. As I have just pointed out it was a charged or loaded term. When people thought of the term "messiah" they pictured a mighty king leading an army to overthrow their enemies. This was not what Jesus had come to do. Therefore He didn't want people to go along with this misunderstanding and so He avoided using this term. He also as we see here didn't want His disciples going around openly professing to people who He was. This would only have served to increase Jesus fame and make the latter part of His ministry more difficult. People would have come and tried to make Him their king by force in necessary.

In the short time He had remaining the Lord Jesus must prepare Himself and the disciples for His passion. Therefore the disciples are given strict instructions to keep the truth about his real identity to themselves. They are not to broadcast it to the world.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see Peter go from hero to zero.

30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 관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시켰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담대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명예와 진실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호가 부적절하거나 틀렸다면 그분은 베드로를 지적하고 시정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반박하지 않고 받아들이심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가 옳고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자신을 지칭하기 위해 메시아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그 것은 충전된 용어였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그들은 적을 전복시키기 위해 군대를 이끄는 강력한 왕을 상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에 동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분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고백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명성을 높이고 그분의 사역의 후반부를 더 어렵게 만드는 데 기여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필요에 따라 억지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의 순간을 위해 자신과 제자들을 준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에 관한 진실을 그들 자신만 간직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드로가 영웅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1 We must think and study for ourselves

I am sure that over the past few weeks and months you have heard about this new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known as Chatgpt. In case you have been living in a cave and have no idea what I'm talking about let me explain. Chatgpt is a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ool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at allows you to have "human-like" conversation with your smart phone or computer. To put it simply, its enabling you to talk to a smart robot. You can ask it questions or ask it to find or research things for you. Or, and this is the great potential danger you can get it to do your thinking for you. I installed an AI app on my phone just to test it out. I asked it to comment on the "genocide of the Canannites" that took place in the Old Testament. It didn't like the query at all. It told me that it was not appropriate or productive to engage in sensitive topics like genocide. In other words some topics are deemed "too sensitive" to talk about.

I hope that worries you. It certainly worries me. I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think by a robot that has been preprogrammed with a certain political world-view. In the past we had to go to libraries to research things and find the answers to challenging questions. Now we can just ask our smart phones or computers. In the future where might this lead? Perhaps Christianity itself will be deemed too sensitive to talk about. Maybe what is in the bible will be considered hateful and not productive. This is already a reality in some places around the world. Will the young generation of today just accept what they are told without carefully thinking and studying for themselves. We saw this in our passage today. What did people think of Jesus. Some perhaps had carefully weighed up all the evidence and come to a conclusion. The majority I suspect just followed what everyone else said about Jesus. Imagine basing a decision on your eternal destiny on what a friend, family member or neighbour told you.

We are called to be good students of the Word. We are to read, study and meditate upon scripture in order to be assured of what it tells us. Let us be careful then not to base our decisions or live our lives resting on things that we have heard others say. Let us learn to study and think for ourselves.

최근에 Chatgpt 로 알려진 새로운 인공 지능 시스템에 대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hatgpt 는 인공 지능 기술로 구동되는 자연어 처리 도구로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인간과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스마트 로봇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질문을 하거나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찾거나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 대신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으니 큰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휴대폰에 AI 앱을 설치했습니다. 나는 구약성서에서 일어난 "가나안인의 대량학살"에 대해 논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질문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대량 학살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부 주제는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저는 확실히 걱정합니다. 저는 특정한 정치적 세계관으로 미리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무엇을 생각 하는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료를 조사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가야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물어보면 됩니다. 미래에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아마도 기독교 자체는 너무 민감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있는 것은 혐오스럽고 생산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전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현실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스스로 고민하고 공부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받아들이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모든 증거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결론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말한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친구, 가족 또는 이웃이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좋은 학생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시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확신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하는 법을 배우시다.

2 Who is Jesus to YOU?

Do you know how many books have been written about Jesus Christ? It's almost impossible to discover an accurate figure. Believe me I tried. We can say with some certainty that He has been the subject of thousands of books down through the centuries. He has fascinated, and continues to fascinate people. Every age rediscovers Him for themselves.

So there is no shortage of opinions about Him. Jesus is; the great teacher, the wise man, the first socialist, the rebel, the sage, a Jewish carpenter, a miracle worker, a charlatan, someone who never really existed, the Messiah, our saviour. When it comes to other figures in history there may be widely differing opinions. For example, in the United Kingdom for many years Winston Churchill was widely celebrated. He was the Prime Minister who led the nation through the dark days of the second world war. In 2002 the BBC conducted a nationwide poll and Churchill was voted as the number one greatest Britain of all time. Since then those on the left of the political spectrum have chipped away at his legacy. Today he might not rank so highly. He is derided amongst other things as being a racist and Islamophobic. My point is this, whatever decision you make regarding Winston Churchill is ultimately fine. You can love him, loathe him or straddle the fence. The same cannot be said for what you think about Jesus Christ.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determines your eternal destiny. The decision is stark. It's absolutely black and white. You either accept Him as your Lord and saviour and put your faith for salvation in Him and what He accomplished on the cross, or you do not. Respecting Jesus, considering Him to be a good and decent man will not suffice. So Jesus question to His disciples rings down through the ages. It is a question that everyone sooner or later must answer. Who do you say that I am? Think carefully and make sure you answer well.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얼마나 많은 책이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도는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수세기에 걸쳐 수천 권의 책의 주제였다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는 스스로 그분을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의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위대한 교사, 현명한 자, 최초의 사회주의자, 반란군, 현인, 유대인 목수, 기적의 일꾼, 사기꾼,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역사의 다른 인물에 관해서는 매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수년 동안 윈스턴 처칠이 널리 칭송되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 전쟁의 암흑기의 나라를 이끈 총리였습니다. 2002년 BBC는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처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국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치적 스펙트럼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유산을 깎아내렸습니다. 오늘날 그는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종 차별 주의자이자 이슬람 혐오증으로 조롱받습니다. 제 요점은 윈스턴 처칠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궁극적으로 괜찮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결정은 엄중합니다. 완전한 흑과 백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냐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은 여러 시대를 거쳐 울려 퍼집니다. 언젠간 모든 사람이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신중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